

하나님의 신앙교육

고린도전서 4:14-17

한희자 목사님

나는 우리교회를 유치부 때부터 다녔다. 여러분의 아득한 선배다. 말씀을 어린이들이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가정과 교회에서 되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1. 주인공인 어린이와, 어린이의 배경이 되는 어른의 관계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영화에서, 악을 무찌르고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주인공은 다 어린이들이다. 태권V, 독수리5형제, 명탐정 코난, 포켓몬스터, 다 주인공이 어린이들이다. 어린이가 보는 만화영화는 어른들이 만든다. 그런데 주인공은 어린이다.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다. 어릴 때 꿈과 희망을 제대로 가져야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 세계에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주인공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아니다. 태권V의 주인공 훈이는 자기 아버지 김박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어린이 뒤에 어른 조력자가 있는 것이다. 독수리5형제(과학난자대 잭차넌)의 뒤에는 이들을 모아서 지혜를 주고 용기를 준 남박사(난부 박사)가 있었다. 어른이 있었다. 코난은 어떤가? 유명한(모리 코고로) 탐정이 있다. 포켓몬스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주인공 옆에는 어린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돕는 어른이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말을 잘 듣고, 어른은 어린이를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란다. 유명한 위인 중 하나가 토마스 에디슨이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인간이 100%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1%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착각해서 99%의 노력을 강조하는데, 1%의 영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3개월 밖에 다니지 못했다. 너무 산만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위대한 인물로 길러낸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떤가? 수학과 과학만 잘 했지, 다른 것은 다 못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수학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뒤에는 그를 믿어준 부모님이 있었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마리 퀴리도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스스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위인이 된 사람은 없다. 반드시 어른들을 통해서 자라나서 위인들이 되었다. 여러분 어린이가 주인공이지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2. 바울의 신앙 교육

바울이 오늘 고린도교회의 어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스승과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1)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편지를 쓴다고 했다. 그냥 교인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낳았다고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에서 ‘스승’이라는 단어 파이다고 고스(παυδαγωγος)는 가정교사 노예를 가리킨다. 바울은 지금 기독교 교육은, 가정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발휘하게 해 주어야 한다.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하라는 것이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1주일에 한 시간 하는 그 시간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집에서 부모님이 해 주셔야 한다. 학교교육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신앙교육도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잠재력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2)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가르친다. Do as I say,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말로 해서 듣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Do as I do,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해야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이다. 자녀들을 세상 변화시킬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 바울은 끊임없이 분쟁하는 고린도교회 앞에, 직접 모범을 보였던 것이다.

(3) 이렇게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역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했다.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운 것이다. 자녀들이 자랐을 때에는, 그들에게 리더십을 나눠 주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내어 합작해서 세우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에서만,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동원되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교육인 것이다. 교육은 한 식구, 온 사회가 합작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유아세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말도 못 하는 유아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 장로교회는 이것을 찬성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유아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 세례를 받도록 하는 부모님이, ‘내가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의 구주로

믿으며,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목사님이 회중에 게도 묻는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기로 다짐하십니까?”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함으로써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유아들,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는 소망과 결단을 다 같이 한다는 의미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합작해서 여기 있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목회의 중직을 맡겼다. 파트너십이다. 이것은 한국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많은 모범이 된다.

이 세대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도록,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란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양육하고 기르시기 바란다. ‘나를 본받으라’하면서 본을 보이시기 바란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합작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참사랑교회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린이를 잘 기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모범이 되시기 바란다.